

초대시

이재민 // 은혜와진리교회 장로

### 한 눈을 감고 하나님께 감사가 보여요

한 눈을 감으면 세상이 반으로 보일까?  
아니, 한 눈이 감기면 세상을 거의 볼 수가 없다.

세상에서 너무 바빠 눈을 뜨고 있는지 감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눈을 감고서야 눈이 있음을 알았다.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두 눈에 비할 수가 있으나  
너무 커서 보지 못했고, 너무 가까워서 느끼지 못했고  
한이 없어서 깨닫지 못한 이 못남을 용서하옵소서.

해가 지면 날이 어두워지고  
변함없이 내일의 아침이 밝아 오지만  
이렇듯 감사 없이 지나온 하루는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음이라  
하나님은 밤새 내 눈을 고치시느라 갖은 애를 쓰셨습  
니다.

인간은 복잡 미묘한 감정과 거미줄처럼 얽힌 관계 속에  
육신이 죽는 그 날까지 너무 바쁘지만,  
정작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면  
그 수고는 헛되고 헛됨이 빼에 저민다.

뒤돌아보면 지난 모든 것이 어제 일반 같은데,  
그렇게 애를 쓰며 달려온 긴 세월에 열매는 무엇인가?  
꿀송이보다 더 달콤한 열매가 있으니 하나님을 알았음  
이라  
하나님을 뵈었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음이라.

육신에 의지한 삶이 그리 순탄하지는 않았어도  
육신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알았음이 얼마나 행복한가.  
인간의 받을 복의 전부는 하나님 한 분이여라.

 감사의 눈을 다시 한번 크게 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2021학년도부터 학부제 도입

복수트랙·교양인증제·사제동행 등 특별프로그램으로 장점 극대화 전략

아세아 복음화를 위해 설립되어 세계 복음화로  
뻗어나가고 있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총장 정  
홍호 박사)가 2021학년도부터 학부제를 본격 도입  
한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는 신학과, 선교문화복지  
학과, 기독교교육상담학과, 선교영어학과, 선교중  
국어학과 등 학과 중심으로 학사를 운영해왔던 틀  
을 벗어나 학부제를 도입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  
대를 대비해 사람을 키워내는 교육에 더욱 집중하  
는 방침이다.

오늘날의 대한민국 중고등학교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진로를 고민하기보다 어느 대학을 갈 것인  
가에 더 집중하게 만들고 있다. 오직 공부에만 매몰  
되어 지나가는 탓에 대학교에 진학하고 나면 이전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방향을 잃어버리는가 하면 입  
시를 지나 취업의 문을 향해 달려가도록 몰아간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는 고등학생 시절 전공에  
대한 고민을 할 여유가 없었던 신입생들이 대학 입  
학 후 여유를 갖고 전공을 탐색하여 결정할 수 있도  
록 학부제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부제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의 교  
육이념을 지키면서 세분화된 전공지식을 넘어 통  
합적 지식을 아우르는 융합적 인재를 양성하는 시  
대의 필요성에 부응하는 적합한 교육제도라고 여  
겨진다"며 "교육 특성화를 통해 학부제와 특별프로  
그램의 장점을 극대화 시키고자 한다"고 전했다.

2021년도부터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에 입학하  
는 신입생들은 진로에 따라 글로벌미래신학부와  
글로벌융합리더학부로 배속되고, 자신의 정체성을  
수립하는 측면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인문학적 교  
양을 배우게 된다.

글로벌미래신학부에서는 가장 전통있는 학문

중 하나인 신학과와 신학을 공부하고, 글로벌융합  
리더학부는 기독교교육과 미디어, 사회복지, 영어,  
중국어, 청소년 상담지도 등을 공부하며 올바른 인성  
을 바탕으로 창의융합형 기독교 리더로 자리매  
긴다.

학생들은 복수트랙으로 두 개의 전공을 선택할  
수 있으며, 교양인증제 아래 역량 육성 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기독교 전문 지도자로 성장하게 된다.  
또한 교수와 학생이 동행하며 다양한 비교과 활동  
을 통해 삶과 생각을 나누는 특별 프로그램들이 운  
영된다.

학교측은 "교육 특성화를 통해 학부제와 특별  
프로그램의 장점을 극대화시키고자 한다"면서 "시  
대가 요청하는 글로벌리더 양성을 위해 융합적 교  
육을 함으로써 사회 각각의 영역에서 인정받는 복  
음전도자로 길러내겠다"고 밝혔다.

### 사설

### 국가안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잠재적 위  
협에 대비한 실전 훈련이 곧 스탠다드"라면서 하반기  
연합훈련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방부는 코로나19를  
발미로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또 "최근 폐쇄된 사격 훈련장, 민간  
시위로 인한 불충분한 훈련장 사용 등으로 준비 태세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했다. 북한 핵무기, 개성 연  
락사무소 폭파 등을 볼 때 안보 태세를 더 강화해야 한다.

여담의 한 의원은 1일 "주한미군은 한·미동맹 군사  
력의 오버캐파(overcapacity·과잉)가 아닌가 한다"라  
는 발언을 했다. 대부분의 한국 국민은 첨단 무기로 무  
장한 우리의 국력이 북한에 비해 월등하다고 생각한  
다. "주한미군 없이도 한국 홀로 북한의 전쟁에서 이  
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도 56%나 된다.

국방부가 2019년 발간한 국방백서에 의하면 북한군  
병력은 128만여 명으로 한국의 59만 9000여 명의 2배가  
넘는다. 전차는 한국 2300여 대, 북한 4300여 대, 전투함  
정은 한국 100여 척, 북한 430여 척, 전투기는 한국 410  
여 대, 북한 810여 대다. 북한의 주요 무기 수량은 한국

의 2~4배 수준이다. 재래식 전력은 '첨단대 구형'으로  
남북한의 전력을 비교할 수 있다.

그러나 전 세계 6개국만이 상용 무기화한 SLBM(잠  
수함 발사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 전력을 무시할  
수 없다. 북한의 신형 잠수함은 핵미사일 3기를 탑재할  
수 있다.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는 지금도 북한의 비  
대칭 전력 강화는 끊이지 않는다.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신화 대북제재위원회 전  
문가 패널 최종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말 대규모 잠수  
함 훈련센터와 연쇄 시설을 건설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2  
일 월터 사프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올해 안에 북한이  
3000급 신형 잠수함을 진수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외에도  
북한은 전지전, 사이전, 무인기, 특수전부대, 미사일, 장  
사정포, 핵과 생화학 등 비대칭 전력을 날로 강화해나  
고 있다. 간혹서는 안 될 것은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서는 국가안보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  
다. 결손을 알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한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  
시는 고전 1:27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한다.

### 정부가 교회를 록 집어 규제하는가

정부는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하여, 10일  
부터 교회에서 정규 예배 외 모든 종교 활동을 규제한  
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어길 경우,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벌금을 물리고 집합(예배)금지 조치를 한다고 하였다.  
여기에는 정규 예배 외 각종 대면(對面) 모임 금지, 예배  
시 찬송가와 통성기도 자제, 음식 제공 및 식사 금지, 출  
입자 명부 관리, 유증상자 출입 제한, 마스크 착용, 시설  
소독, 이용자 간 거리 유지 등이다. 여기에서 대부분의  
것들은 기존에 잘 지키던 준수 사항이다.

그런데 이번엔 정부가 발표한 것 가운데 특이한 것  
은, 교회에서 정규 예배 외에는 모든 신앙 활동을 중단  
하라는 것이다. 미완까지인 명령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벌금과 집회 금지로 다스린다는  
위험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  
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최근 감염 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는 발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의 통계에 의하면 7  
월 8일 현재, 전체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자 13,244명  
 가운데 교회와 관련된 인원은 약 550여 명으로 전체의  
4.1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이단(신천지/만민교회)의  
5,254명(39.36%), 물류센터/물센터/방분관제/클럽/운동  
시설 등에서 확진된 924명(7.0%), 그리고 병원/요양병  
원에서의 843명(6.4%)보다도 적은 것이다. 이를 한국교  
회 교인 전체 987만 명(정부의 2015년 종교인구 조사 결  
과)을 대상으로 놓고 보면 0.0057%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 6만 여 개의 교회 가운데 30여 개 교회로 0.053%에  
해당한다. 그것도 6개월간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이 지  
속되면서 발생한 숫자이며 비율이다.

7월 9일 11시 현재 청와대의 국민청원에도 '정부의  
교회 정규 예배 이외 행사 금지를 취소해 달라'는 청원  
이 256,273명에 달한다. 이는 청원 게시 하루 만의 일로,  
기록적인 것이다. 이것이 국민의 여론이 아닌가? 이 정  
부가 방역을 빌미로 종교를 탄압한다는, 특히 기독교를  
핍박한다는 오명을 받지 않으려면 이런 몰상식적인 행  
정명령을 철회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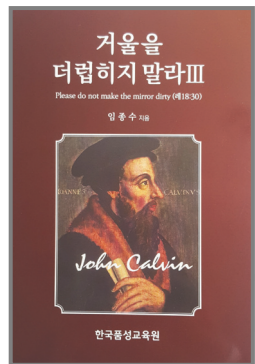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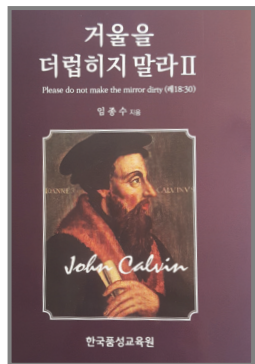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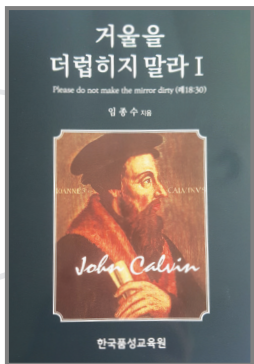
###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 고문 : 정채위원장 조몽목 목사
-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 인쇄인 : 배성환
-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사이트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 믿음은 구원으로 인도하고 품성은 행복과 성공으로 인도한다



품성은 성공과 행복의 열쇠이다. 품성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이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는 영적인 면만 강조하  
였고 육체를 가진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등한시하여 삶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야 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남의 발에 고추를 따  
가는 생활이 그 대표적인 이야기이다. 그래서 저자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  
아가는 영적훈련을 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품성에 관한 책자를 7권 출판  
하였다. 최근에 출판된 '거울을 더럽히지 말라' 1,2,3권을 소개한다.

#### 강의 안내

각 교회에서 시행되는 각종 중직자 세미나  
각 지역에 거주하는 목회자들의 소 구름

#### 책 구입처

cslim4305@gmail.com 임종수 원장  
재무담당 이미란 이사 010-8618-9982  
계좌번호 농협 351-0771-1742-13  
한국 품성교육원

“ 제1권 품성과 비슷한 덕목인  
성경, 덕성, 인격, 개성을 바울  
은 어떻게 개발하였는가? 이조  
500년 유교와 고려 500년 불교가 만들  
어낸 윤리 도덕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윤리부문 7가지와 자기 계발의 부문에  
필요한 10가지를 논하였다.

“ 제2권 대인관계 부문 10가지와  
신사적인 성도가 되기 위한 품성  
4가지와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품성과 더 좋은 것과 가장 좋은 품성이  
무엇인가를 논하였다.

“ 제3권 부정적인 품성 6가지와 영  
적전쟁의 품성 10가지와 신자가  
물리쳐야 할 세력들 즉 점과 굶,  
자살, 인종차별과 이단척결을 논하였고,  
올바른 생활을 위한 실천분야 5가지를 논  
하였다. 만약 이 책을 매일 한 과씩 훈련  
한다면 훌륭한 신자가 될 것이다.  
곧 새 언약과 품성과 자유의 대 헌장 두  
권이 출판 될 것이다.